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1일(금요일) / 장 소 : 산학협력관 4층 C.A.F.E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1. 책 내용 관련 의견 나누기</p> <p>1-1 감상평 [함*원]</p> <p>일단 저는 항상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도 생활비 일부를 저금에 사용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 책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p> <p>먼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테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버는 돈에서 일부를 예금적금 하면서, 돈을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을 바라는 체계는 재테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고, 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는 필수라고 느꼈습니다.</p> <p>또 저는 그냥 무작정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절제하면서 절약하고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책에서 '행복비용'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무작정 절약하는 제게 색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돈이 넉넉하지 않은 처지다 보니, 무작정 절약이라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해야하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제가 고정적 수입이 커지게 된다면 꼭 이 '행복비용'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와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경제 주간지를 읽을 계획입니다. 이 책에서 추천해 준 3개의 경제 주간지를 아직 전부 읽어보진 못했지만, 매주 읽으며 공부해나갈 생각입니다.</p> <p>뒷 부분에는 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 조금 큰, 고정적 월급이 생기면 다시 읽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서, 고정적 월급이 없습니다. 이런 제게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다시 읽을 것 입니다.</p> <p>책을 읽으면서 N잡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잘 하는 일을 생각해내서 도전할 계획을 세울 것 입니다.</p> <p>주식은 항상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천은 옮긴 적은 없었는데요. 책에서 살짝 맛보기를 했지만,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처음</p>							

보니까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심비우스에서 모의투자도 하면서 더 많은 용어를 알아가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부동산 이었는데, 제가 가진 돈에 비해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청약인데요. 저는 성인이 되고, 무작정 청약을 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는 모르고, 도움이 된다는 글만 읽고 시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청약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이전에 들어논 나를 칭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던 제게, 쉽게 이야기하듯 말해주는 책이라 술술 읽었습니다. 또 어쩌면 경제가 내 관심 분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적용하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연]

일단 책을 펼치자마자 가장 공감됐던 문장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친구들의 관심사도 술과 연애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거든요.’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학교 끝나고 뭐 먹을까? 아니면 막 어디 갈래?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랬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제는 막 너 막 적금 들었어? 예금은 뭐가 좋아? 너도 막 우리도 막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이 나에게 필요할 것이란 걸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심비우스에서 토론을 하고 싶다는 주제를 메모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소비 줄이기 계획 세우기 그리고 이제 최근 3개월간 지출 내역 확인한 후 카테고리 나누기랑 서로 부업 추천해 주기. 각자 어울리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 다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재테크랑 투자 초심자, 입문자를 위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한 걸 보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앞부분은 그래도 한 번쯤 다 생각해 보고 어딘가에서 들어본 방법들이었는데 부동산 파트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재테크 책을 잘 읽지 않기도 하는데 임장이란 단어를 진짜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맨날 뉴스, 기사 이런 데서만 보다가 제가 직접 구입한 책에서는 처음 보게 된 단어라 제가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견문을 더 넓히고 싶습니다. 또 네이버 지도를 그동안 그냥 맛집 지도로만 활용했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지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아직 내 집을 얻기에는 좀 나이가 어려서 와닿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년 뒤에는 입장을 보러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

경제 책이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술술 읽혀서 좋았다. 내용도 그

렇게 어렵지 않아 기초부터 쌓아야 하는 나에게 딱 맞는 책이었다. 경제, 재테크는 어렵다보니 깊게 알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항상 회피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그렇게 외면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은 많지만 어려운 주제인 저축, 주식, 부동산에 대해 쉽게 알려줘 입문책으로 알맞은 선택이었다. 특히 중간중간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책들도 알려줘 재테크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이나 예금 들고 소비를 줄이는 등 단순한 방법들만 생각했다. 근데 소비를 줄이는 법이 극단적으로 무지출 생활이 아니라 내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카테고리 별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해 게으르게 행동해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알바를 안 하고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다보니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맘처럼 쉽게 되질 않아 속상했다. 책을 다 읽은 지금, 내 소비를 되돌아보니 모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왜 저축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저축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건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저축, 부동산 파트에서 설명들이 나와 같은 대학생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 우리는 내 집 마련보다 자취방이 우선이라 부동산 내용은 여전히 멀게 느껴진 것 같다. 그래도 몇 년 후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다.

1-2. 서로에게 부업 추천해주기

[손*연]

영상 편집 : 에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등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남들보다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을 빠르게 끝내는 기술을 부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디자인 작업 : 색감이나 디자인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로고 제작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 디자인 감각을 뽐낼 수 있는 부업을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연]

나레이션 및 성우 : 교내에서 관련 활동하고 있는 만큼 나레이션을 부업으로 한다면 잘 해낼 것 같다. 차분한 목소리로 듣기 편안하기에, 이런 부업을 추천한다.

아이 픽업 : 차분하게 아이들을 잘 대하는 성격이 아이 픽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교하는 아이를 픽업하여 등원 시키는 등 픽업 일을 부업으로 한다면 잘 해낼 것 같다.

[함*원]

유튜브 성장시키기 :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성장 시킨다면 좋은 부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해진 주기를 가지고,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온라인 마케터 : 요즘은 부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마케터도 구한다. 복수 전공으로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마케터로 활동한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부업이라고 생각한다.

2. 모의투자 계획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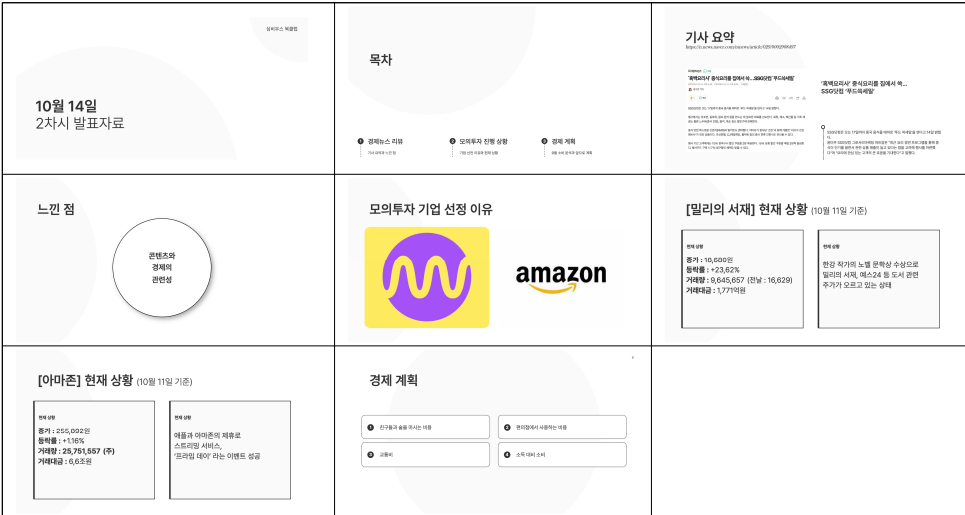
2-1. 방식

	<p>각자 2개의 기업을 정한다. 3개월간 기업의 주식을 지켜보며, 급상승 혹은 급하락하는 상황을 찾는다. 이 때 상승/하락의 이유를 찾아보며 이해한다.</p> <p>2-2. 기업 정하기 [손*연] 두산 / 넷플릭스 [이*연] 유한양행 / 엔비디아 [함*원] 밀리의 서재 / 아마존</p> <p>2-3. 상승할 때 확인할 내용 - 전체 시장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가 - 내 주식이 속한 업종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가 - 내 종목에 별다른 이슈가 있는가</p> <p>2-4. 떨어질 때 확인할 내용 - 전체 시장이 같이 하락하고 있는가 - 내 주식이 속한 업종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가 - 내 종목에 별다른 이슈가 있는가</p>
--	--

2024년 10월 11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4일(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각자 경제 뉴스 리뷰, 모의투자 진행 상황, 경제 계획에 대한 발표 진행 함*원 발표						
							
	<p>안녕하세요! 10월 14일 2차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 <p>경제뉴스 리뷰와 모의투자 진행 상황, 그리고 경제 계획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경제뉴스 리뷰입니다. 제가 본 기사는 ['흑백요리사' 중식요리를 집에서 썩... SSG닷컴 '푸드씩세일' 라는 제목의 생활 경제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를 처음 보려니, 조금 어려운 감이 느껴져서, 비교적 쉬운 카테고리인 생활 경제에서 기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p> <p>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SSG닷컴 오는 17일까지 중국 음식을 테마로 '푸드 썩세일'을 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미주 SSG닷컴 그로서리마케팅 파트장은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중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요리에 관심 있는 고객의 큰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p>저는 제 전공과 경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디</p>						
	<p>10월 14일 2차시 발표자료</p>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뉴스 리뷰 모의투자 진행 상황 경제 계획 <p>기사 요약</p> <p>경제뉴스 리뷰</p> <p>생활 경제 기사를 처음 보려니, 조금 어려운 감이 느껴져서, 비교적 쉬운 카테고리인 생활 경제에서 기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p> <p>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SSG닷컴 오는 17일까지 중국 음식을 테마로 '푸드 썩세일'을 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미주 SSG닷컴 그로서리마케팅 파트장은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중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요리에 관심 있는 고객의 큰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p>저는 제 전공과 경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디</p>						

어로 인해서 경제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크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활용해서 편의점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SSG도 할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일이, 곧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디어를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며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의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업은 밀리의 서재와 아마존인데요.

밀리의 서재의 경우, 기업을 선정하는 시기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며 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세를 타서 밀리의 서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했습니다. 또 제가 심비우스를 시작하며,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의 변화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 기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기업을 하나 고르고 싶었는데, 해외의 브랜드나 경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잘 알고, 다양한 이슈가 있을 기업을 찾다 보니 아마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밀리의 서재는 종가 18,680원, 등락률 +23.62%, 거래량 9,645,657주 입니다. 밀리의 서재 전날 거래량은 16,629주로 확연하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은 1,771억원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밀리의 서재, 에스24 등 도서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똑같이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255,892원, 등락률 +1.16%, 거래량 25,751,557주, 거래대금 6.6조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애플과 아마존의 제휴로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데이’ 라는 이벤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9월 소비를 분석하며, 경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개강을 하며 친구들을 자주 만나, 놀 때 사용하는 비용이 많았는데. 이런 것의 경우 매달 일정 비용을 정해두고, 그 금액에 거의 다 갔을 때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은근 편의점에서 짜잘짜잘 쓴 비용이 많다고 느껴졌는데요. 적은 비용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편의점에서 너무 큰 소비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타지 않았고, 최대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친구 생일선물에도 은근 많은 돈을 사용하는데. 이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제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저는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많이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제외하고 소비를 계산하면서 적절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 발표

	<p>목차 심비우스 북클럽 2주차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주의 경제 뉴스 모의투자 기업 리뷰 9월 소비내역 	<p>이번주의 경제 뉴스</p> <p>한은, 기준금리 연 3.25%로 0.25%p 인하... "물가 안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라는 제목의 KBS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3년 2개월간 동결해오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외환시장 위험 완화 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p>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p>NVID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설립된 미국의 그래픽 카드 제조사 • 2018년 10월 1일 기준 시가총액 1,484억 달러 • 주요 사업 분야: 그래픽 카드, 데이터 센터, 게이밍, 자율주행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p>유한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제약 회사 • 2018년 10월 1일 기준 시가총액 1,145억 원 • 주요 사업 분야: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p>9월 소비내역</p> <p>소비 타겟어보기</p> <p>9월 소비내역 분석을 위한 파이 차트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줍니다.</p>
		

안녕하세요. 심비우스 북클럽 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주 경제뉴스, 모의투자 기업 리뷰, 9월 소비내역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주 경제 뉴스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25%로 0.25%p 인하..."물가 안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라는 제목의 KBS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3년 2개월간 동결해오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외환시장 위험 완화 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수업 쪽지 시험 준비를 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외우고 끝났을 텐데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로 해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봤는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통화 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기사의 주제인 기준금리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의 비율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금리도 인하되며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자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때문에 힘들어하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평균액으로 이때 사채는 제외합니다.

기사를 읽다보면 긴축 정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긴축 정책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격변을 겪고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집값 불안에 2021년부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내수 회복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로 개인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디다고 진단하며 회복 속도가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금융시장 조기 안정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며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사는 끝났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보니 뉴스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됐고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무시하지 않고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의투자 기업리뷰입니다.

첫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1926년 설립된 한국 대표 제약기업으로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약품들을 제조하고 매매합니다. 제가 유한양행을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잘 모르는 기업보단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잘 아는 기업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한양행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왜 그런지 조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2조원으로 한국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순위는 35위입니다. 10월 11일 기준 증가는 161,300원으로 전일 대비 1.64%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이 제조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1년 약값이 약 3억 원으로 측정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도 하던 신생아 호흡부전 치료제 '뉴팩탄'을 생산 단가 등을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자 유아용 약품 생산이 중단되고 있어 물량이 다 떨어지면 환자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의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바이오 주식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익숙할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는 1998년 미국에서 설립된 반도체 전문 다국적 기업으로 폴스택 컴퓨팅 인프라 회사입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킹과 그래픽 분야로 운영되며 AI가 중요해진 현재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AI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미국 주식에서도 엄청난 강세이며 비슷한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해외주식을 하게 된다면 투자를 할 것 같아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해 현재 미국주식 시가총액 순위 2등입니다. 10월 11일 기준 증가는 134달러로 한화 약 18만원입니다. 전일 대비 0.01% 하락했지만 낮은 수치라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에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칩 '블랙웰'을 최초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애널리스트인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12개월분이 이미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증가 기준 사상최고가 135.58달러까지 1달러도 남지 않은 지금,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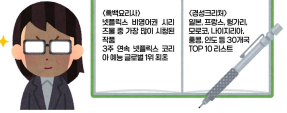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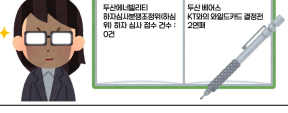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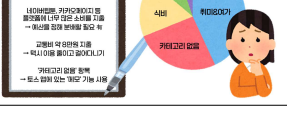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9월 소비내역입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쇼핑, 식비, 편의점과 잡화, 취미와 여가 카테고리 순으로 돈을 썼습니다. 9월 소비 중 제일 만족했던 소비 카테고리는 쇼핑과 공연입니다. 추석 연휴동안 세일을 하던 쇼핑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루드티를 사 최근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티켓값이 약 7만원이었지만 정말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무대 연출이 정말 예뻐고 노래와 연기 모두 너무 만족해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소비는 보지 않는 OTT 구독비와 교재입니다. 수업 오티 후 교

재가 필요할 줄 알고 구매했는데 교수님이 강의자료를 다 올려주셔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싸다는 이유로 애용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여 은근히 큰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몰랐던 경제 용어들과 주식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주식을 하셔서 완전히 모르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할 거라 생각해 부모님이 주식에 대해 말하실 때 관심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식을 안 하더라도 계좌를 만들면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귀찮다고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 주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면 바로 수익을 얻지는 못해도 소소한 재미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연 발표

 <p>심비우스 2주차 발표 경제 데이터 가이드북</p>	<p>목차</p> <p>오늘의 경제 소식 모의투자 나의 소비 분석</p>	<p>오늘의 경제 소식</p> 									
<p>모의투자 선정 기업</p> 	<p>넷플릭스</p> <p>10월 14일 772.79 USD → 10월 14일 713.00 USD -13.5% 감소</p> <table border="1"> <tr> <td>주당</td> <td>2,249,525</td> <td>2,179,071</td> </tr> <tr> <td>시가</td> <td>736.00</td> <td>726.62</td> </tr> <tr> <td>총가</td> <td>722.79</td> <td>713.00</td> </tr> </table>	주당	2,249,525	2,179,071	시가	736.00	726.62	총가	722.79	713.00	<p>넷플릭스</p> 
주당	2,249,525	2,179,071									
시가	736.00	726.62									
총가	722.79	713.00									
<p>두산</p> <p>10월 14일 KRW 182,900 → 10월 14일 KRW 192,500 3.67% 증가</p>  <table border="1"> <tr> <td>주당</td> <td>126,708</td> <td>234,159</td> </tr> <tr> <td>시가</td> <td>184.00</td> <td>198,700</td> </tr> <tr> <td>총가</td> <td>182,900</td> <td>192,500</td> </tr> </table>	주당	126,708	234,159	시가	184.00	198,700	총가	182,900	192,500	<p>두산</p> 	<p>9월 소비내역</p> 
주당	126,708	234,159									
시가	184.00	198,700									
총가	182,900	192,500									
<p>감사합니다!</p> 											

안녕하세요, 북극성 심비우스 2주차 발표를 하게 된 손*연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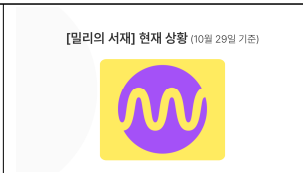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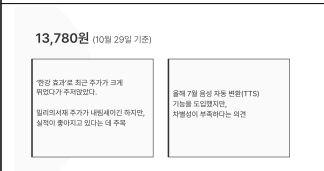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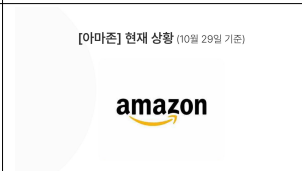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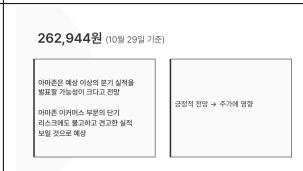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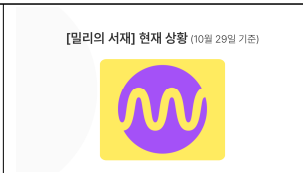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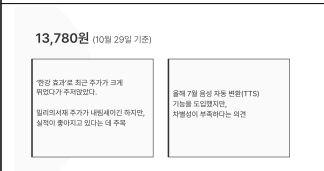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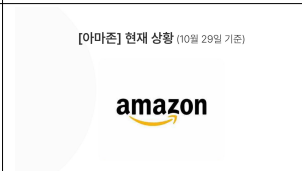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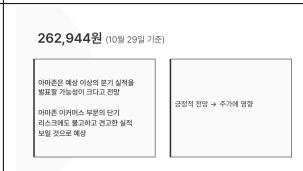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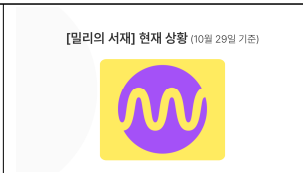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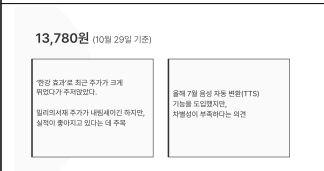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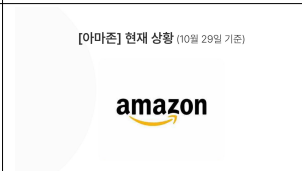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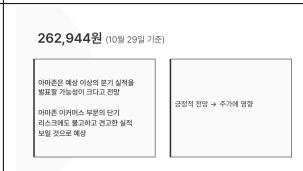
첫 번째로 제가 조사한 경제 뉴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부 네이버웹툰 이용하고 계신가요? 전 네이버웹툰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친숙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오늘 피피티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네이버웹툰은 6개월 전부터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장 기업 공개 후 추가 보상에 관련된 갈등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IPO 추가 보상 재원 규모와 기준 등을 같이 만들 것을 사측에게 제안했지만, 사측은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네이버가 여는 '지상최대공모전 2024'에 출품된 작품이 여성 혐오와 성별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불매 운동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네이버웹툰 마케팅 계정은 이 불매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더 불타

	<p>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앱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적 하락으로 주주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p> <p>다음으로는 모의투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p> <p>제가 선정한 기업은 넷플릭스와 두산입니다. 넷플릭스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 전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 저는 평소에도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흑백요리사>가 붐이 오면서 모두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라 생각해 넷플릭스를 선정했습니다.</p> <p>그리고 두산은 제가 두산 그룹 산하 스포츠단인 두산 베어스의 팬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p> <p>먼저 넷플릭스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1.35% 감소하였는데요. 11일 종가는 722달러, 14일은 713달러로 끝났습니다. 흑백요리사와 경성크리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흥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식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 추측했습니다.</p> <p>다음으로 두산입니다.</p> <p>주식이 떨어진 넷플릭스와 달리, 두산은 3.67퍼센트 증가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하한가였는데 14일을 기준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p> <p>kb0 야구단인 두산 베어스는 비록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2연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하자 심사 건수를 0건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이뤄냈습니다.</p> <p>이건 제 9월 소비내역입니다.</p> <p>제 소비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취미와 여가인데요. 내역을 본 결과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등 웹소설&웹툰 플랫폼에 너무 많은 소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달 예산을 정해 놓고 분배해 결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또, 교통비가 약 8만원, 7만7천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는데요. 택시 이용을 줄이고 걷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p> <p>카테고리 없음 항목이 내역에서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부터 토스의 메모 기능을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p> <p>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

2024년 10월 14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29일(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각자 모의투자 진행 상황 발표 진행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 책에 관한 이야기 및 책을 읽고 알게 된 본인의 심리 문제에 대한 토론</p> <p>[모의투자 진행 상황] 함*원 발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r> <tr>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td> </tr> </table> <p>안녕하세요! 10월 29일 3차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 <p>오늘은 저의 모의 주식 현재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10월 29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p> <p>먼저 밀리의 서재입니다.</p> <p>밀리의 서재는 현재 주가가 13,780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한강 효과’로 최근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주저앉았는데요. 10일 노벨문학상 발표 다음 날부터 2거래일 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밀리의 서재에서 한강 작가의 책을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17일까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은 관련 출판사들이 인터넷 서점들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맺고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록 밀리의 서재 주가가 내림세이긴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 <p>다음은 아마존입니다.</p>													
														
														

아마존의 현재 주가는 262,944원입니다. 아마존도 관련 이슈를 설명드리자면, 예상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부문의 단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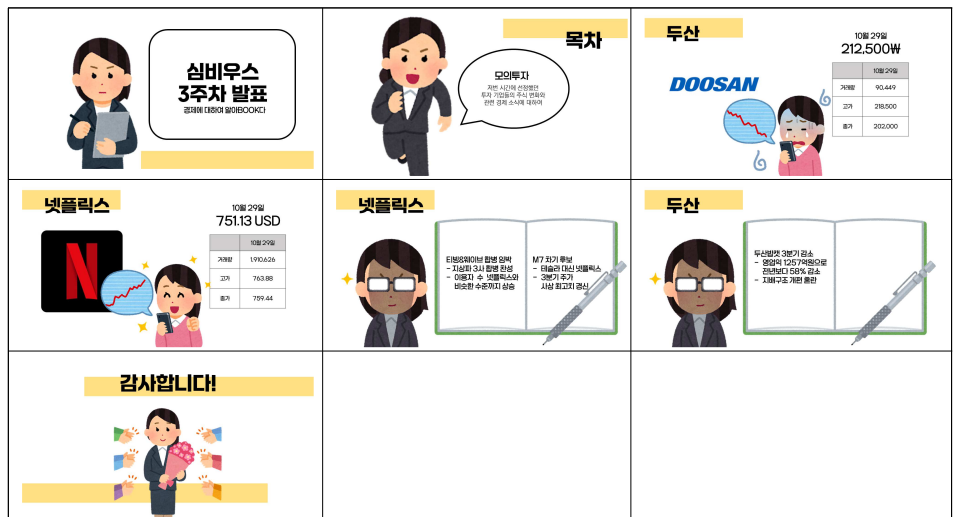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이*연입니다. 심비우스 북클럽 3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주식 상황 리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종가 147,700원으로 전일 대비 1.07%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1,385,906이며 시가총액과 외국인 소진율은 저번과 비슷합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545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0.6% 증가로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목표인 매출액 2조, 영업이익 1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고금리, 미국 대선으로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종가 141.54 달러로 전일 대비 0.80%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205,122,109이고 시가총액은 저번과 비슷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시총은 장중 한때 3조 5300억 달러에 달해 애플의 시총 3조 5200억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 또한 글로벌 정치적 긴장, 금리 조정 가능성, 미국 대선 등 다양한 세계적인 이슈로 많이 변동 중입니다.

손*연 발표



안녕하세요, 3주차 모의투자를 발표하게 된 북극성 손*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선정한 그룹을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와 '두산'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본 발표에 기준이 된 날짜는 오늘 10월 29일인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9일 기준, 넷플릭스는 시가가 약 751달러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저번에 비하면 줄었지만, 아직도 어마무시한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중 2가지의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국내 OTT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OTT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흑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넷플릭스에 대항하여 국내 OTT기업인 티빙과 웨이보가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합병 소식은 이전부터 계속 들려왔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웨이브의 주주인 지상파 3사가 전부 동의를 한 가운데, 티빙의 주주인 KT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T가 만약 찬성을 하게 된다면, 양측 주주들은 곧바로 계약에 들어갈 것이며, 계약이 마무리되면 국내 거대 OTT가 탄생하게 됩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수를 합치게 되면 넷플릭스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욱 양성하면서, 넷플릭스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펼칠 지 기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넷플릭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M7의 유력 후보로 오르는 것입니다. M7은 미국 증시밸리와 관련된 7개의 대형 기술주를 이르는 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테슬라를 꺾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3분기에 가입자 수, 매출, 준당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전부 깨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55%로 엔비디아와 메타 다음 가는 기록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두산입니다. 두산은 29일 시가 212,500원, 종가 202,000원으로 하락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는 두산밥캣이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257억원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한 것이 큰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7만 3천원에서 28% 하향 조정한 5만 7천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두산밥캣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 결과 당분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감소한 이유에는 미국 건설 경기 악화, 불확성 및 달러 재고 조정, 고정비 부담 등이 있으며, 지배구조 개편도 영향이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내용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함*원

저는 이 책을 처음 골랐을 때,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보다 심리학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를 가꿔갈지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준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각 섹션 별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ection 1. 나와 다른 타인의 삶과 어우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라는 말을 들어와서,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서 부정적이고 싶은 날에도,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한 나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현명하게, 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 감정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태도가 옳은 걸까?”라는 부분도 제게 꼭 필요한 말을 던져줬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못 하는 저에게 주는 조언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오늘 남의 잘못을 참고 포용해 주었다면, 그것은 내일의 나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평상시에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Section 2. 일터에서 마모되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섹션의 제목을 보고,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섹션은 집중도 잘 안되고, 공감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예시의 상황들을 봐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자치기구 등에 대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나를 위한 갑옷은 친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갚아줄지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사람과 관계를 틀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Section 3. 일상에서 감정에 맞춰 춤추기]입니다. 이 섹션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인 관계는 서로가 좋아해서 시작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며 좋아지는 관계도 있기에, 마음을 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다. 짧은 기간에 사람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나다 보면 나와 맞는 구석이 보일 거고, 그러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더 일을 한다는 아이의 말에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모습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일을 하는 모습은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힘들까 봐 엄마를 응원해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빠도 밖에서 항상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Section 4.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걸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게 하기보다 자신이 타고난 천명을 찾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지금 저는 못 하는 걸 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도 내가 타고난 일들을 찾아서 떠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순간이 곧 영원’이란 말 보다는, ‘현재에 더 충실하라’는 말을 더 신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지금 반짝이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당장의 반짝임보다는, 조금 수수하더라도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언젠가 반짝이는 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익이 되지 않는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든 지 제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도움이 되는 고통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눈을 키워, 제게 도움만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연

내가 많이 고민하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잘 이겨내는 법을 생각하게 됐다. 심리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심리책들은 독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함께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어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됐다. 이 책은 각 질문마다 이론이 들어가있어 더 흥미로웠다. 이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해놔서 이해하기도 편했고 읽기 더 좋았다. 작가가 대학 교수라 주변인들, 특히 제자들의 이야기가 꽤 많은데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보니 내가 한 번쯤 했던 고민들이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 순식간에 책을 읽어 갔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것들과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아 중간중간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업무 외의 자기개발이 꼭 필요할까?’였다. 이 챕터는 직장과는 같은 일터에 들어가 있는 챕터인데 이상하게 공감이 많이 갔다. 질문만 읽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일 것 같다. 학력보단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다고 해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내용이였다. 특히나 나의 위치가 어디든 배울 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인상적이였다. 다는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보다 잘하는 후배가 있으면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나아지지 않아 그냥 ‘나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사람인가보다. 내 성격은 원래 그런가보다’라고 넘겼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누가 뒷통수를 때린 느낌이었다. 난 항상 남의 장점은 칭찬해주면서 나 자신의 장점보단 단점에 집중한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것도 후배가 나보다 잘한다면 내가 작아보이고 스스로 아쉬워했다. 책을 다 읽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러워하고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 장점을 더 키울 수 있게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손*연

평소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잔뜩 기대가 있는 상태로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목차에 있는 4가지의 커다란 섹션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입문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로 칸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심리 관련 연구나, 한마디의 조언들은 제게 흥미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섹션 3에 있는 한마디가 인상 깊었는데,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을 아직 못 찾은 것 같다면, 사실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고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온 말입니다. 전 항상 연애에 관련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를 사귀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제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들과의 그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난 과거 연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전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걸요.

의외의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책이라 그런지, 아쉬운 책이긴 했어도 읽은 것에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담긴 책이 다음에 또 나온다면, 읽을 계획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알게 된 본인의 심리 문제]

함*원

저는 마지막인 [Section 4.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기]를 읽으면서 저의 심리적 문제를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빛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라'는 말은 조금은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던 모습과, 당장 멋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걸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게 하기보다 자신이 타고난 천명을 찾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말과 "순간이 곧 영원"이란 말 보다는, '현재에 더 충실하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저의 문제가 책을 읽고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점을 알았으니,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연

우리 사회는 꿈, 목표가 없으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젊은 세대에 많이 강조한다. 나도 목표를 만들고 싶지만 너무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아 큰 목표 없이 살고 있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강압에 천천히 만들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위안삼고 있었는데 책에서도 굳이 빠르게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80억 명이 있다면 80억 개의 삶이 있다는 말처럼 삶에 정답은 없지만

왠지 사회가 정해준,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게 정답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게 틀리지 않을까 긴장한 적도 많은데 책을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래도 나를 위해 잘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고생이 있으면 거기서 얻는 것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좌절을 겪어도 이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했다.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외면하며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쉬운 길을 선택할지 어려운 길을 선택할지 항상 고민한다. 쉬운 길을 선택하면 몸과 마음은 편하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몸과 마음, 특히 몸이 좀 고생하겠지만 그만큼 결과가 값지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고생한 것보다 신체적으로 움직이며 오래 일해 몸이 고생한 적이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체력이나 지구력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항상 일할 때는 힘든데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생이 많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굳이 고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손*연

제가 공감하는 저의 심리 문제는 책의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바로 '불판'과 '불명'입니다. 책에서는 사람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기 생각이 합리적인지 확신이 없어서, 불만을 드러낸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불만 드러내는 방식을 몰라서, 마지막으로 누구 탓인지 몰라서가 그 이유에 해당합니다. 전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드러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나온 이유대로라면, '불만을 드러낸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만날 사람들인데, 굳이 얼굴 붉혀서 안 좋은 감정을 서로 남기지 않고 싶다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 보면서 누군가는 모두와 완만하게 잘 지낸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손절을 하지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성향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편인 제가 항상 힘들어할 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이런 이유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각자 모의투자 진행 상황 발표 진행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 책을 읽고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선정하여 발표하기 위에서 언급한 걱정되는 부분에 관한 해결방안 이야기 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투자 진행 상황 및 걱정되는 부분, 해결방안 발표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함*원 발표</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11월 5일 4차시 발표자료</p> </div>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되는 부분 ● 해결방안 ● 모의투자 진행 상황 </div>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가장 걱정되는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나 이외에 바라보는 것 ●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것 ● 모두가 좋아해주는 것 ● 성공을 이루는 것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 ●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걸 부정적인 ● 노력을 기울여 잘 수 있게 해준다 ●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찾아 그것을 ● 제대로 발휘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div>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밀리의 서재] 현재 상황 (11월 5일 기준)</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14,470원 (11월 5일 기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노후준비는 밀리의 서재가 올해 추가적인 신사업 없이, 보통 부영으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p> </div> <div style="width: 45%;"> <p>밀리의 서재의 경우 로빈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분할 거래는 유망</p> </div>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아마존] 현재 상황 (11월 5일 기준)</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279,120원 (11월 5일 기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도미나전 에너지가 아마존과 소일 투자 계약 계약 체결 후, 다른 기업에도 참여 논제</p> </div> <div style="width: 45%;"> <p>둘이 합쳐는 연수채를 감추 위한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인지는 평가</p> </div> </div> </div> </div>						
<p>안녕하세요! 11월 5일 4차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 <p>오늘은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저의 모의투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먼저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선정입니다. 피피티에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나를 나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박,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여유로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나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강박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 바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p>							

안함도 느껴집니다. 여유로우면 '내가 뭘 까먹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입니다. 사실 당장 멋진 해결방안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니다.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해결 방안으로는 책 속의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뭔가 큰 변화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니다. 책에서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걸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게 하기보다 자신이 타고난 천명을 찾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잘 하지 않는 일에 굳이 잘하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잘 하며 빛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감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저의 모의 주식 현재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11월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밀리의 서재입니다.

현재 주가 13,990원입니다. LS 증권은 밀리의 서재가 올해 추가적 신사업 없이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전자책 구독자 증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밀리의 서재 웹 소설 론칭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며, 2차 콘텐츠 사업 또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현재 주가는 270,729원입니다. 관련 이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가 아마존과 소형 원자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기업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협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호재로 평가되었습니다.

심리에 대한 팀원의 한마디

손*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낱 배우일 뿐"라는 문장입니다. 전 학창 시절 성인이 되고 사회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소설 하나를 읽게 됐는데요, 그 소설에 인용된 문장이 앞서 소개된 문장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우들은 각자 맡은 바를 다 하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작품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고요. 저를 배우에 대입해 보니,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으며 바쁘게 살아야지 좋다고 생각해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찾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쳐버리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고 의미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졌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제 자신을 속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의 생각들을 다 인정해요. '아,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러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휴식 시간

을 만들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있든가 혼자 좋아하는 공연을 보든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불안함과 허무함을 잊어버려요. *원이의 해결방안인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 그 자리에서 빛나겠다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일이 아니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로 리프레시하는 것도 추천해요!

이*연 발표



안녕하십니까, 이*연입니다. 심비우스 북클럽 4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모의주식 상황 리뷰와 책의 내용 중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증가는 134,800, 전일대비 2.81%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2조원, 외국인 소진율은 약 20%입니다. 유한양행은 31일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밸류업 계획 공개했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용은 2027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을 10% 이상 끌어올려,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을 8% 이상 달성 목표,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 수출과 2개 이상의 신규 임상 진입, 내년부터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평균 30% 이상 확대 목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저번주와 같이 고금리 지속,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행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주가지수 변동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종가 135.40달러로 전일대비 1.98% 상승했습니다. 거래량과 시가총액은 저번과 비슷합니다. 현재 AI 투자 확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플랫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반도체주인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8단 제품 공급할 것이라 시사해 한국 주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알림이죠? 사랑이...걱정돼...? 맞습니다. 책의 네 파트 중 저의 걱정은 사랑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사랑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사랑

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인 공감과 위로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와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싶다가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 미성숙한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 더 많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현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책에서 다루는 다른 것들은 자아 찾기, 일터, 인간관계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고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연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책을 읽은 제가 나름대로 낸 결론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깐 지금부터 사랑을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닦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을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면 나중에 사랑을 할 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조금씩 쫓고 찾기도 하지만 지금 내 생활을 충실히 잘 해내면서 나 자신을 보살피면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책도 “연애는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저와 친구들, 가족들과 있을 때의 저는 다르겠지만 그 또한 나의 내재된 모습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으로 심비우스 북클럽 4주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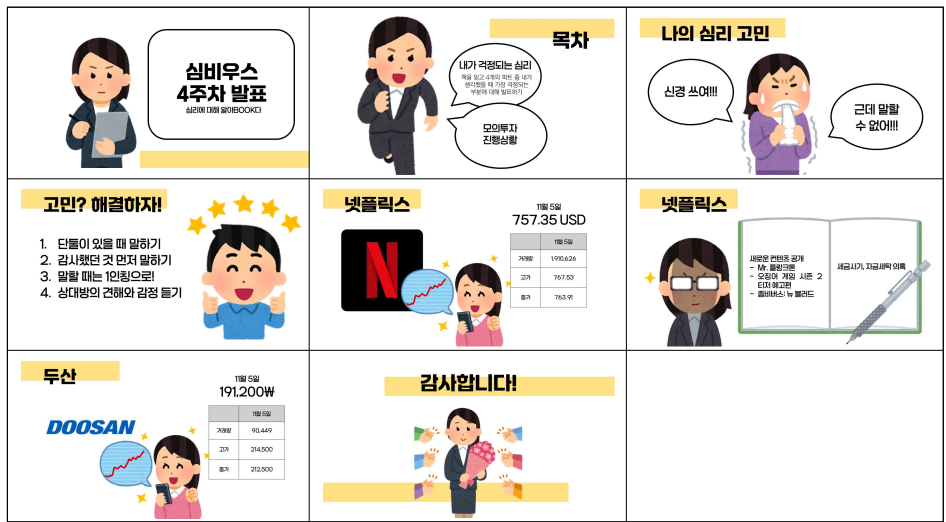
심리에 대한 팀원의 한마디

손*연: 책 읽을 때는 그저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남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속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의 반쪽 같다는 사람 또한 존재하고요. 하지만 전 아직까지 그 정도로 격한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결국 성사가 된 것이죠. 아직 24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가나, 너무 좋아서 심장을 주체할 수 없다는 점은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원: 해결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닦치지 않은 것들을 너무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연애를 하면서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잘 얻지만, 굳이 조금해하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연 발표



안녕하세요, 심비우스 4주 차 활동에 대해 발표하게 된 손*연입니다. 우선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을 읽고 제가 생각한 '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진 뒤, 모의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저번 주 토론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 거절했다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거절로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너무 말을 돌려 말했거나 강하게 말하지 않아서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그 대상은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 이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제게 부정적인 후폭풍이 닥칠 것 같아 두려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피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조사해 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각자 사람들이 올린 여러 팁을 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방법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불만은 단둘이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만을 말하게 된다면, 체면을 공개적으로 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갑자기 불만을 말한다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죠? 상대와 오늘만 볼 각오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했던 일, 좋은 일을 먼저 말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면 좋습니다. 말할 때는 '네가' 보단 '내가'에 집중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모의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1월 5일을 기준으로 시가 약 757달러, 종가 763.91달러로 저번 주에 이어서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로 흥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특히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r. 플랑크톤, 오징어 게임 시즌 2, 좀비버스 등이 공개됐습니다. Mr. 플랑크톤의 경우 홍종찬 감독이 연출했으며 우도환, 이유미, 김해숙, 오정세 등이 출연합니다. 장르는 로맨스 코미디로 제작 발표회를 4일에 진행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게임 시즌 2 주역들이 10월 3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개최된 루카 코믹스 게임 페스티벌에 참석하면서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넷플릭스가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3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실제 매출을 감안해 계산하면 최대 876억 원을 내야 한다고 추정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 9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5천억 원을 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더 의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입니다. 두산은 시가 191,200원, 종가 212,500원으로 저번 발표 때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소식을 찾아봤으나, 두산 베어스 소속 허경민 선수의 FA만 있을 뿐, 주가와 연관된 소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에 대한 팀원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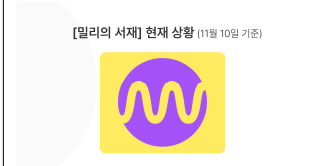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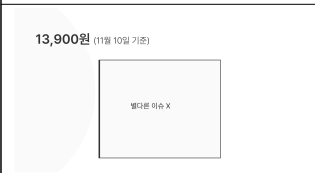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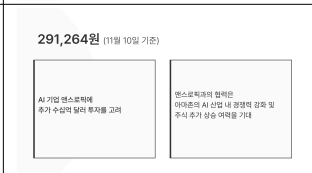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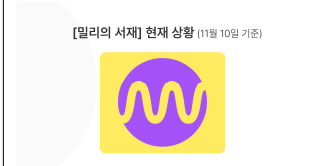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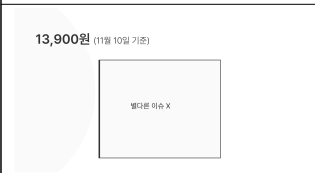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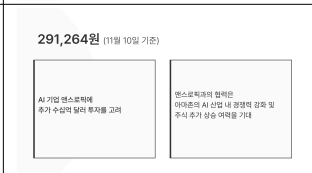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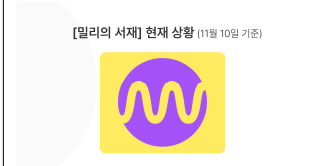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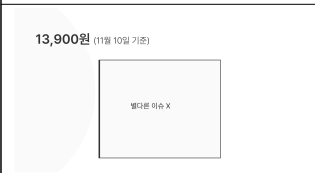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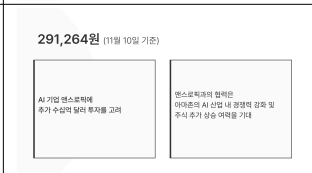
이*연: 제가 생각하기에 *연이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제가 느낀 건 생각보다 사람들은 피드백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못해 빙빙 둘러대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포장하면 진솔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남이 하는 거절이 정말 거절인지 아님 부끄러워 그렇게 말하는 건지 헷갈린 적이 많지 않나요? 저는 불만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해줘도 되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투는 금물이지만 *연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걸 아니까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함*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어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신경 써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행동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부정적 감정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24년 11월 5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모의투자 진행 상황 발표] 함*원 발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d> <td style="padding: 5px;">  </td> <td style="padding: 5px;">  </td> </tr> </table>												
													
													
<p>안녕하세요! 11월 11일 5차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 <p>목차에 나와있 듯 오늘의 발표는 모의투자 상황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p> <p>그럼 저의 모의 주식 현재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밀리의 서재입니다.</p> <p>밀리의 서재는 주가 13,900원입니다. 일주일간 밀리의 서재와 관련된 시장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가에도 큰 변동이 있지 않아서, 관련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p>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p> <p>아마존의 현재 주가는 291,264원입니다. 아마존이 AI 기업 엔스로픽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 웹 서비스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시키는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엔스로픽의 협력은 아마존의 AI 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또한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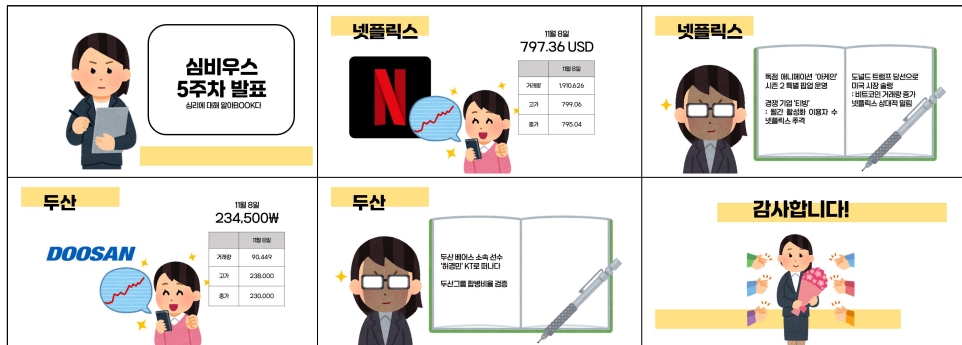
이*연 발표



안녕하십니까, 이*연입니다. 심비우스 북클럽 5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모의주식 상황 리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기준 유한양행 증가는 132,500원, 전일대비 0.91%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2,049,482주이며 시가총액 약 11조원, 외국인 소진율은 약 21%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늘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승리하며 한국 증시는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압박받을 수 있어 시장 입지를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11월 8일 기준 증가 147.63달러로 전일대비 0.8% 하락했습니다. 거래량 175,665,830 주이며 시가총액은 저번과 비슷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3조 6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반도체 설계업체의 주가는 이달 12% 상승했고, 2024년 들어 가치는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빅테크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8일부로 미국 다우 존스 지수에 인텔 대신 편입하게 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거졌던 주가 거품론 등 논란을 잠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대형주 30곳을 묶어 발표하는 지수로 소속 산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식을 제외하고 산업을 대표하는 새로운 회사를 편입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순간입니다.

손*연 발표



안녕하세요. 심비우스 5주차, 모의투자에 대해 발표하게 된 북극성 소속 손*연입니다. 바로 모의투자 현황으로 들어가볼까요?

오늘 발표할 투자 현황은 11월 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저번에 비해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약 797달러의 시가를 기록하였으며, 약 795달러로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관련 뉴스로는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콘텐츠 부분으로는 넷플릭스의 독점 애니메이션인 '아케인'이 시즌 2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아케인은 2021년 11월 처음 발표했던 애니메이션으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IP를 사용하였습니다. 독특한 세계관 확장과, 게임을 몰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접근성으로 흥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에 시즌 2가 나오면서 특별 팝업을 같이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번에 이은 경쟁 기업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저번 발표 때는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티빙입니다. 여태 압도적 1위를 지켜온 넷플릭스에게도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티빙은 올해 큰 유행을 가져왔던 프로야구의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광고요금제로 유료 가입자를 끌어모았으며, 미디어플랫폼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분기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인 MAU를 눈여겨 볼 수 있었는데요, 모바일인덱스를 기준으로 780만을 돌파해 넷플릭스의 MAU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출렁했습니다. 7만 5000달러를 넘어가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런 상황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은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비자 주식, 버크셔보다 더 거래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넷플릭스의 주식에 어떤 변동을 불러올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산입니다. 11월 8일을 기준으로 약 23만원의 시가를 기록한 두산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로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프로야구구단인 두산베어스의 허경민 선수 이적 소식입니다. 두산의 타자였던 허경민 선수는 두산에 남을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과 달리 KT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최대 40억원이라는 조건으로 이적을 하였으며, 10년 이상 몸담았던 팀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두산그룹은 사업 재편안과 관련하여 법인 두 곳으로부터 합병비율을 검증 받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합병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왔고,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앞으로의 두산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바입니다.

[정신건강 검사 결과]

학교 비검사이트에 있는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았다.

함*원

나의 결과는?



번영 집단

‘번영’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합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력과 희망을 가지고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최악’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사회적·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낮게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웰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건강’ 집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적응하며 지내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마음 케어를 위해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연

나의 긍정적 정신건강 검사 결과는?



보통 정신건강 집단

이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건강’ 집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적응하며 지내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마음 케어를 위해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사회적·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낮게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웰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번영’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합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력과 희망을 가지고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손*연

나의 긍정적 정신건강 검사 결과는?



번영 집단

‘번영’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합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력과 희망을 가지고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쇠약’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사회적·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낮게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웰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건강’ 집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적응하며 지내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마음 케어를 위해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 검사 이야기 나누기]

함*원

저는 심리 결과가 “번영 집단”에 속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신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이라고 해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력과 희망을 가지고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고,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심리 상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잘 해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고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해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친구들이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고민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걱정을 나누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저의 정신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이번 상담 결과를 통해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던 만큼, 앞으로 이런 방식을 유지하며 건강을 꼭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이*연

사실 저는 이번 심리검사를 하면서 다들 나온 ‘번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과인 ‘보통 정신건강 집단’은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잘 해내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선 취약해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현재 학업이나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문제없이 다 잘하고 있지만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금방 해소시킬 만큼 건강한 심리를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기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쉽게 민감해지고 계획이 틀어지면 화부터 나게 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나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마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욕심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 스스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숲을 지나 드디어 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눈 앞에 펼쳐진 건 널따란 들판이 아닌 더 큰 나무들로 이뤄진 더 어두운 숲이었던 것입니다. 허무하고 지치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의 의

미가 없어진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어찌저찌 숲을 걷고 있지만 걷는 게 걷는 게 아닌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의 길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답이 빠르고 쉽게 나올 거라면 제가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저를 힘들게 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서 굼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이기에 한번의 노력으로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느리더라도 저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껴주고 제 마음에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드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힘든 것을 잘 알리지 않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연

건강검진 결과 전 '변영' 집단에 속한다 나왔습니다. 최근 감정 변화가 오락가락 하고,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보니 왜 그런지에 대해 납득이 갔습니다. 설명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제 상태는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친구 관계에 예민하고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의식적으로 많이 받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대학교에 오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본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고요. 그때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일이 있으면 하루는 기분, 길면 몇 달까지 이어졌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상대적으로 짧게 힘들어하고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회복탄력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의 제가 더욱 마음에 듭니다.

저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일기장에 푸는 편입니다. 'notion'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그곳에는 남들에게 차마 보여주지 못할 저의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일기장에 풀면 기분이 괜찮아지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죠. 보통 영화&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해소하거나 잠을 자는 것 같네요. 회피는 좋지 않다 하지만,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큰 감정 호소를 막기 위한 회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주변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만약 싸웠을 경우에는 역지사지도 가능해지죠. 친구들도 이 방법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2024년 11월 11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p> <p>함*원 개인적으로 읽고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진로에 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머리가 복잡했는데,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p> <p>특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라는 파트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지,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는 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파트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다면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조급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이 외에도 앞으로 내가 구직활동을 해가며 도움이 될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이 책을 구입 다시 읽으면서, 꼭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p> <p>이*연 진로설정에선 다양한 진로검사들을 알려줬는데 학창시절에 한 번씩 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경험해본 것들이 얼마 없어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좀 더 성숙해진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 지금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로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적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제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보겠습니다. 저는 ‘나한테 안 맞으면 바꾸면 되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로를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p> <p>취업 파트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파트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면접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면접 당일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그동안 입시나 학교</p>						

생활을 하면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써보지 않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고 자신의 경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줘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연

책 자체가 접근성이 낮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읽기 편했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있는 메모장, 표, 그래프, 그림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면접 파트에는 증명사진 예시처럼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 최근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것이 유익했고 책을 읽은 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서 투두리스트처럼 해볼 목록을 쓰는 재미가 있었다.

[진로 설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함*원

저는 아까 감상문에서 말했던 부분인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면 돈을 버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좋아하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경우 쉽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 등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말해주 것처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연

저는 진로를 설정할 때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오랜 시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보다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정 있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지기도 하고 잘 해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정 없이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게 되고 직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들도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 진로로 택했는데 열정 없이 일하면 그게 정말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일을 저의 진로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확신이 없어도 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제 일을 다하다 보니 이 일이 좋아졌고 잘한다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진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고 열정 있게 해나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해나가는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손*연

제가 진로 설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진로 시간부터 우리는 최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진로로 해야할까, 아니면 잘하는 걸 진로로 해야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전 후자가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진로설계' 라는 수업을 들으며 직업을 정할 때 가치 설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가치 설정이 무엇이나면, 워라벨, 가족, 성취감, 돈 등의 목표를 일렬로 나열한 뒤, 내가 미래에 직업을 가질 때 무얼 제일 우선시 하는지 결정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활동에서 전 성취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책 초반을 보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두 번째는 잠재력의 발견이고, 잠재력이 발현되면 좋은 성과를 내며 이 좋은 성과가 성취감 및 발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전 이 문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성취감이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내야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하려는 마음만이 아닌, 잘해야 하는 재능 또한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일로 가져간다면, 언젠가는 지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가져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도움된 부분]

함*원

저는 “학년별 경력관리 노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학년은 자기분석 단계로 대학 생활 설계와 자기 이해, 진로탐색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학년은 진로 설정 단계로 직무 전문성 함양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외활동을 시작합니다. 3학년은 직업선택 단계로 취업 과정의 이해, 어학성적 취득,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4학년은 실전 취업 단계로 취업 스터디와 인적성 NCS 필기 공부, 기업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 3학년 진학을 앞둔 2학년으로써 2학년과 3학년 파트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2학년은 진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 자격증 취득과 대외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중 대외활동 시작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총 3개의 대외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름방학에 시험을 봤지만 떨어지면서 하나도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올해에는 하나도 취득하지 못했지만, 내년엔 2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은 선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학성적을 획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중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꼭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성적도 차차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어부터 외우면서 내년 말에는 시험을 보고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학년별 경력관리 노트’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올해를, 그리고 앞으로 올 내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이 가장 도움 되었다고 선정했습니다.

손*연

전 '진로'라는 키워드의 뉘앙스 때문인지, 책을 읽기 전까지 제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고 첫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정리해보고, 행복 그래프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전 7살 때부터 여러 경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술학원이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로 다닌 미술학원은 제가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책을 내는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3~4권의 책을 직접 제작했고,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 여러 기법을 사용해 동화 삽화를 제작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그림을 취미로 삼아서 지금도 열심히 제 취미를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플롯은 미술학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악기입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가 플롯을 잘 볼 것 같다며 추천해주셨고, 좋은 인연을 만나 공짜로 레슨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리 내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플롯이었지만, 전 하루만에 소리를 내게 만들었고 처음으로 '아,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자신감 및 자존감을 기르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서 전공생이 되려는 시도도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전 이때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전 소심하고 내향적인 캐릭터인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죠. 코로나블루를 겪으면서 성격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고,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해진 친구 덕분에 제 진로도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대한 흥미가 없던 상태였고, 예체능에 더 가까운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친구 모두 미디어 관련 학과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교 학생회인데요.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과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고, 의지가 되는 친구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제 행복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했던 과거 때문인지, 유독 낮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이*연

책에서 특히 도움이 됐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 평범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자신의 삶이 평범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평범한 삶이란 게 있겠는가.”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평범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굴곡 없는 삶? 그럼 굴곡이 없으면 특이한 삶일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평범하고 무난하다고 평가하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깎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좀 더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없고 내가 걸어온 길들은 다 특별한 경험들이란 걸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줄 몰랐는데 깨닫게 돼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뜻깊은 책이었습니다.

[각자 진로에 대한 이야기하기]

함*원

먼저 제가 흥미 있는 분야는 바로 기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과 관련된 일

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전시나 팝업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행사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관심 분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가장 관심이 크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행사 기획자인데요. 물론 언제 또 저의 진로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기획이 너무 재미있어서 행사 기획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행사 기획자는 ‘컨퍼런스 및 회의 기획자’, ‘이벤트 기획자’, ‘이벤트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을 홍보하거나 지역 진흥을 위한 전시회, 시사회, 축제, 자동차 시승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섭외하고 실행까지 하게 되는데요. 설문조사와 시장조사처럼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행사의 틀을 잡아갑니다. 또 행사 관련 예산도 세우면서 인력도 고용하는 등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워크넷의 행사 기획자 직업 정보에 따르면 행사 기획자는 물적 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시설, 자재 등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다음으로는 창의력인데요.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입니다. 이 외에도 재정 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영업과 마케팅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 의사소통, 미디어, 경영 및 행정 등 다양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사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능력일 키워나가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

제 진로는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시간에 선생님 대신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6학년 땀 학교 축제 진행자로 나서 전교생과 학부모님들 앞에 섰습니다. 다 끝나고 아나운서 같다는 칭찬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에게 비난하지 않으려 한 말이라도 이때의 경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지역 청소년 축제 기획 단체에 들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동안 활동했습니다. 그 곳에서도 무대 진행을 매년 맡아 경험을 쌓고 아나운서라는 진로를 확정지었습니다. 사진을 다 넣진 못했지만 들어간 첫해를 빼고 매년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학창시절 이 경험은 진로뿐만 아니라 제게 많은 영향을 줘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는 대학 전공이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대학에 왔고 다양한 교내 활동으로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나운서라는 진로가 많이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진로가 있고 제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걸 해보고 더 많은 걸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알려준 직업감사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저를 알아보고 아나운서라는 진로가 나에게 맞는지 아님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것은 어떤지 결정해보겠습니다.

손*연

우선 제 진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분야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흥미 있는 분야이자 제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 엔터사업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편집과 디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려하고 개성이 잘 드러난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지 생각한 결과, 엔터 업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하나의 앨범을 작업하는데에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전, 그 중에서도 뮤직 비디오와 앨범 패키지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에는 뉴진스와 에스파가 있었습니다.

뉴진스의 경우 여태까지 K-POP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앨범 패키지와 마케팅 방식을 가져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Y2K를 촌스럽지 않게 재해석하여 그동안 시장에 없었던 여러 굿즈들을 만들고, '뉴진스'라는 장르가 생각날 수 있도록 마케팅하여 디자인했습니다. 또, 에스파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내세워 마케팅했는데요. 에스파의 뮤비를 보면 다른 아이돌 뮤비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려함은 저의 눈을 사로잡았고, '나도 저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모의투자 진행 상황 보고]

함*원

안녕하세요. 저의 모의투자 진행 상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리의 서재'입니다. 11월 19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밀리의 서재는 13,740원으로 지난주 발표 때 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3일 기사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3분기 누적 매출 531억원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도 30% 증가했습니다. 누적 가입자가 8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285,799원으로 지난 발표 때 보다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19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과 알파벳 모두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존의 AWS가 마진 및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해소됐으면서, AWS의 강력한 입지를 바탕으로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연

안녕하십니까, 북극성 이*연입니다. 심비우스 북클럽 6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모의주식 상황 리뷰와 저의 진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주식입니다. 11월 18일 기준 유한양행 종가는 119,700원, 전일대비 -0.66%(-800)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1,538,053 주이며 시가총액 약 9.9조원, 외국인 소진율은 약 21%입니다. 폐암치료제 '렉라자'에 대해 유럽 악물사용자문

위원회가 승인 권고를 내렸고 이는 집행위원회의 최종 허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허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허가가 나면 기술료로 한화 약 420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11월 18일 기준 종가 140.15달러로 전일대비 -1.28% (1.83)하락했습니다. 거래량 221,865,993 주이며 시가총액은 3.43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의 AI칩 ‘블랙웰’이 서버과열 문제가 발생해 사람들의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자체 생산 과정 중 결함을 발견해 출시 시기가 이미 3개월 늦춰진 상황인데 여기서 더 늦춰질 경우 블랙웰을 구매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서버 과열 문제로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다만 오는 21일 3분기 실적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연

지금부터는 모의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시가 815.5달러로 저번주에 이어서 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약 848달러까지 올라갔으며, 종가 또한 약 847달러로 종가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련 경제뉴스로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백종원 대표의 상장 소식만 있을 뿐, 주가와 관련된 특별한 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입니다. 두산은 밝은 그래프를 보여줬던 넷플릭스와 다른 상황입니다. 시가 233,000원으로 시작했던 두산은 209,000원으로 시장이 닫혔습니다.


관련 경제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두산밥캣의 지분 1%를 보유한 얼라인은 두산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재추진할 경우, 주주가치를 해치게 된다는 계획의 포기 의사를 공표해달라는 내용을 두산밥캣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산밥캣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양사 간 시너지의 가시적 성과 발현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이유로 추진되기 어렵다 보면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회사 간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구조를 형성하는 조직 재편 제도입니다. 완전모회사는 한 기업의 전신 역할을 했던 기업으로 삼성, sk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 완전자회사의 예시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료]

함*원

 <p>11월 19일 6차시 발표자료 : 모의투자</p>	<p>[밀리의 서재] 현재 상황 (11월 19일 기준)</p> 	<p>13,740원 (11월 19일 기준)</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41 1870 1268 1971"> <p>그날의 누적 배움 527개원, 최고 실적 달성여력 30% 증가 누적 가입자 800만명을 돌파로 전년 대비 20% 증가</p> </td> <td data-bbox="1276 1870 1404 1971"> <p>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시장 선도적 자위를 유지할 계획</p> </td> </tr> </table>	<p>그날의 누적 배움 527개원, 최고 실적 달성여력 30% 증가 누적 가입자 800만명을 돌파로 전년 대비 20% 증가</p>	<p>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시장 선도적 자위를 유지할 계획</p>
<p>그날의 누적 배움 527개원, 최고 실적 달성여력 30% 증가 누적 가입자 800만명을 돌파로 전년 대비 20% 증가</p>	<p>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시장 선도적 자위를 유지할 계획</p>			

<p>[아마존] 현재 상황 (11월 19일 기준)</p> 	<p>285,799원 (11월 19일 기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도미나선 애드리지가 아마존과 소셜 펀드 개발 계약 체결 후, 다른 기업에도 알려 논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올리 할려온 인수제를 관측 위한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같다는 평가</p>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심비우스 북클럽</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 19일 6차시 발표자료 : 나의 진로</p>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있는 분야 ● 행사 기획자 ● 업무수행능력 & 지식중요도 	<p>흥미있는 분야</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80px; height: 8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가계 </div>	<p>행사 기획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퍼런스 도움당사자, 이벤트/행사, 유망수행자 ● 컨퍼런스, 이벤트, 유망수행자 관련 행사 기획 가능 ● 직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행사 관련 정보 제공, 관련 유망수행자 정보 제공 																																																																								
<p>업무수행능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8px;"> <thead> <tr> <th>종목</th> <th>종목</th> <th>평가</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주식</td> <td>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1</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2</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3</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4</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5</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6</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7</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8</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9</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20</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body> </table>	종목	종목	평가	10	주식	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1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2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3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4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5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6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7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8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9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20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p>지식중요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8px;"> <thead> <tr> <th>종목</th> <th>종목</th> <th>평가</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주식</td> <td>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1</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2</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3</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4</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5</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6</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7</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8</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19</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r> <td>20</td> <td>채권</td> <td>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td> </tr> </tbody> </table>	종목	종목	평가	10	주식	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1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2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3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4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5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6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7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8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9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20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종목	종목	평가																																																																								
10	주식	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1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2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3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4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5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6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7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8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9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20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종목	종목	평가																																																																								
10	주식	주식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1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2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3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4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5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6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7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8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19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20	채권	채권 발행과 채권 투자 성공률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이*연

<p>심비우스 북클럽 6주차 발표</p>	<p>목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의투자 발표 계획 2. 나의 진로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70.00% • 영업이익 200억 원, 2.00% • 순이익 100.00억 원 • 순이익률 20% • 재무 건전성 2B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50.00% • 영업이익 1.55억 원, 1.25% • 순이익 100.00억 원 • 순이익률 3.27% 	<p>나의 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진로 	
<p>감사합니다</p>		

손*연

<p>심비우스 6주차 발표</p>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Talk 모의투자 진행상황 	<p>나의 진로</p> 												
<p>책 Talk</p> <p>인생 5대 뉴스</p> 	<p>넷플릭스</p> <p>11월 19일 815.5 USD</p> <table border="1" style="font-size: 8px;"> <thead> <tr> <th>종목</th> <th>가격</th> </tr> </thead> <tbody> <tr> <td>고가</td> <td>848.45</td> </tr> <tr> <td>저가</td> <td>847.05</td> </tr> </tbody> </table>	종목	가격	고가	848.45	저가	847.05	<p>두산</p> <p>11월 19일 233,000W</p> <table border="1" style="font-size: 8px;"> <thead> <tr> <th>종목</th> <th>가격</th> </tr> </thead> <tbody> <tr> <td>고가</td> <td>235,000</td> </tr> <tr> <td>저가</td> <td>209,000</td> </tr> </tbody> </table>	종목	가격	고가	235,000	저가	209,000
종목	가격													
고가	848.45													
저가	847.05													
종목	가격													
고가	235,000													
저가	209,000													
<p>두산</p> 	<p>감사합니다!</p> 													

2024년 11월 19일

참가자대표 : 이*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Book)극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2023****	이름	손*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이*연	학번		이름	
	학번	2023****	이름	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모의투자 결과 발표]</p> <p>함*원</p> <p>안녕하세요. 저의 모의투자 진행 상황이자 마지막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밀리의 서재'입니다. 11월 26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p> <p>사실 일주일간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13,240원으로 종가도 일주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월 11일 18,680원으로 시작했던 모의투자가 13,240원으로 5,440원의 손해를 보며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 수상으로 인해 가격이 확 올랐던 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290,338원으로 지난주보다 내리긴 했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로 보이는데요. 26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이 2024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의 배송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큼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10월 11일 255,890원으로 시작했던 아마존 모의투자를 290,338원으로 마무리하며 총 34,448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p> <p>이*연</p> <p>안녕하세요, 북극성 이*연입니다. 심비우스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의주식 리뷰와 소감 그리고 저의 진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p> <p>먼저 유한양행입니다. 11월 25일 기준 종가는 118,200원이며 전일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2,236,522이고 시가총액과 외국인 소진율은 저번 주와 비슷했습니다. 현재 유한양행의 뜨거운 감자 '렉라자'가 국내외 신약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바이오벤처와 간담회를 열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p> <p>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11월 25일 종가 \$136.02으로 전일 대비 4.1% 하락했습니다. 거래량과 시총은 저번 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AI 산업시대에서 가장</p>							

주목받는 회사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애널리스트 성장 둔화 감지한 것인데요. 미래 실적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 충족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대형 고객인 AI용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상장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컫고 있어 엔비디아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모의주식에 대한 저의 소감도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고 주식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일명 '잭팟'이 터질 확률도 매우 적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잘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의주식 활동을 하면서 주식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저에게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기업들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주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연

안녕하십니까, 북극성 소속 손*연입니다. 마지막 심비우스 활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모의투자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약 902달러로 시작하여 865.59달러로 시장이 끝났습니다. 모의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2주차와 비교했을 때 92.8달러, 한화로 129,524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산의 경우 약 18만원으로 시작해 213,500원으로 끝났으며 30,600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한 모의투자인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나중에 실전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진행했던 모의투자처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 발표]

함*원

지금부터 저의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뒤까지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1년 후인 22살, 즉 3학년 기간입니다. 우선 이때는 자격증 취득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MOS, ITQ 정보기술자격증,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과 같이 제 실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 2개 이상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4.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학점은 꼭 챙기려고 합니다. 대외활동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인 기획을 경험할 수 있는 대외활동과, 제가 꼭 하고 싶은 활동인 강원FC 대학생 마케터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1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3살에는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축구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는 토익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목표 점수는 아직 없지만, 일단 가능한 열심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또 인턴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열심히 준비한 제 능력들을 인턴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는 24살로 4학년 재학 중에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기에도 인턴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인턴이 아니라면, 자격증이나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한 능력을 채우고 싶습니다. 내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 능력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로드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취업에 크게 문제를 겪지는 않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

저의 진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진로를 위한 교내 활동, 교외 활동, 취직과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교내활동으로는 동아리나 학교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며 진로 관련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전공 수업을 통해 제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제 능력을 다방면으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외활동으로는 언어 관련 자격증 등 자격증을 취득하며 스펙 쌓고 공모전 및 대외활동으로 진로 관련 경력 쌓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영어나 외국어 공부도 하면서 글로벌한 인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는 다방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대외활동을 통해 경력을 쌓겠습니다. 대외활동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활동을 골라 할 수 있으며 지역부터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홈쇼핑 회사 등 진행을 업으로 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과 쌓아온 경험들을 생각하면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회피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용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연

이건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진로 로드맵을 올해의 저에 맞게 수정한 표입니다. 1학년 때 전 PD가 목표였지만, 올해의 전 디자이너에 가까운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정을 하면서 느낀 건 '큰 틀은 바뀌지 않았구나' 였습니다. 과동아리에서 1인분도 하지 못했던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1인분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기술적인 부분도 훨씬 발전하여 간단한 외주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성장한 제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졌고, 어찌보면 허황된 꿈일지도 몰랐던 진로 로드맵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희망을 느꼈다는 뜻이겠네요! 2025년의 제가 만든 로드맵은 과연 어떤 형태일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소감 발표]

함*원

저는 이번 심비우스가 2 번째 경험입니다. 지난 심비우스는 미디어스쿨이라는 전공에 맞는 다양한 책과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이번 심비우스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북극성을 통해서 경제, 심리, 진로라는 주제로 총 3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책인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를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심리와 관련된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를 읽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앞으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등등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된 책인 “진로와 취업, 제대로 하자!”를 읽으면서 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책들을 읽으니 심비우스가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간 얻고 싶었던 정보를 책을 통해서 얻는 과정도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이를 친구들과 나누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주제로 심비우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

작년에도 한 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 다시 참여하게 돼 더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다. 혼자 책을 읽으면 독서노트에 정리하고 끝이었는데 심비우스 북클럽 덕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잘 읽지 않는 책들을 선정해 더 도움이 됐다. 각 책마다 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이번 심비우스를 되돌아보겠다.

원래는 모의투자를 어플을 이용해 직접 하려고 했는데 주식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모의투자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두 기업을 선정해 흐름을 알아보는 활동을 선택했다. 처음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막상 하다보니 주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경제 기사들도 원랜 정말 안 읽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읽기로 다짐했다.

우리 학교의 카운슬링 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해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편리했다. 심리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라 일상생활은 잘 하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진로 로드맵은 그동안 했던 활동 중 가장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 미래를 상상해서 그려나가는 것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나 비현실적인 것들보다 적은 내용이라도 내가 실제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 많지는 않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손*연

같이 참여한 친구들과 다르게 처음 참여한 심비우스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었다. 원래 다른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스터디와는 차별화된 심비우스를 운영하고 싶었다.

단순히 독서와 토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책을 기반한 활동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보통 책을 완벽하게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시 책 내용을 떠올릴 때 말이 안 나왔던 경험이 많았다. 하지만 책에 있는 활동을 구성원끼리 추가로 하면서 더 유익했던 독서가 되었다. 첫 번째 주에 했던

서로 부업 추천해 주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 나의 독서 경험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평소에 난 고전 소설만 읽는 독서 편식이 있었다. 에세이나 비문학 같은 책은 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않을 거라는 은은한 편견이 내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읽은 책들은 전부 소설과 거리가 먼 책들이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주차를 거듭할수록 익숙해져서 막히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됐다. 선정한 책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기에 더 빠른 적응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책을 선정했을 당시 전부 입문자를 위한 도서로 선정했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가 얕았었다. 다음에 또 이런 주제로 책을 읽게 된다면, 아예 한 분야를 설정해서 입문부터 심화까지 배우는 독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발표자료]

함*원




<p>11월 26일 7차시 발표자료</p>	<p>[밀리의 서재] 현재 상황 (11월 26일 기준)</p> 	<p>13,240원 (11월 26일 기준)</p> <p>18,680원(10월 11일) → 13,240원(11월 26일) = 5,440원</p>
<p>[아마존] 현재 상황 (11월 26일 기준)</p> 	<p>290,338원 (11월 26일 기준)</p> <p>분책드라마(아마존)를 앞두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큰본격들이 파업을 계획.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하다.</p> <p>255,890원(10월 11일) → 290,338원(11월 26일) = 34,448원</p>	<p>22살 → 23살 → 24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살: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23살: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24살: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 99억 9천

이*연

<p>심비우스 북클럽 7주차 발표</p>	<p>독차 심비우스 북클럽 7주차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의투자 상황 리뷰 진로 로드맵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p>유망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기업 선정 기준 유망 기업 선정 기준 유망 기업 선정 기준
<p>모의투자 기업 리뷰</p> <p>NVID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기업 선정 기준 유망 기업 선정 기준 유망 기업 선정 기준 	<p>진로 로드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로드맵 진로 로드맵 진로 로드맵 	<p>감사합니다</p>

손*연

<p>심비우스 7주차 발표</p> <p>진로(대외) 발표</p>	<p>독차</p> <p>진로로드맵</p> <p>모의투자 진행상황</p>	<p>진로로드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진로로드맵</th> <th>모의투자</th> </tr> </thead> <tbody> <tr> <td>진로로드맵</td> <td>진로로드맵</td> <td>진로로드맵</td> </tr> <tr> <td>모의투자</td> <td>모의투자</td> <td>모의투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진로로드맵	모의투자	진로로드맵	진로로드맵	진로로드맵	모의투자	모의투자	모의투자
구분	진로로드맵	모의투자									
진로로드맵	진로로드맵	진로로드맵									
모의투자	모의투자	모의투자									

	<p>넷플릭스</p> <p>11월 25일 902.05 USD</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11월 25일</th></tr></thead><tbody><tr><td>2차</td><td>902.05</td></tr><tr><td>8차</td><td>865.59</td></tr></tbody></table> 	구분	11월 25일	2차	902.05	8차	865.59	<p>두산</p> <p>11월 25일 224,000₩</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11월 25일</th></tr></thead><tbody><tr><td>2차</td><td>227,800</td></tr><tr><td>8차</td><td>213,500</td></tr></tbody></table> 	구분	11월 25일	2차	227,800	8차	213,500	<p>감사합니다!</p> 
구분	11월 25일														
2차	902.05														
8차	865.59														
구분	11월 25일														
2차	227,800														
8차	213,500														

2024년 11월 26일

참가자대표 : 이*연